

보도시점 2024. 11. 17.(일) 12:00 배포 2024. 11. 16.(토) 14:00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한 한-인도 정부, 관계기관 간 교류의 장 마련

- 2024년 제2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협력 워크숍 개최
- 항만, 조선, 도시개발 등 인도 정부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유무상 개발협력 사업발굴을 위한 논의 개진

기획재정부는 인도 중앙·주(州) 정부 고위공무원을 초청하여 11.12.(화)~15.(금) 4일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협력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개도국 경제·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개도국 정부에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자금

인도는 세계은행(WB) 전망에 따라 ‘24년말 경제성장률이 8.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이다. 또한, 국가 인프라구축계획(NIP, National Infrastructure Pipeline)을 세우고 2025년까지 약 1.5조 달러 투자를 목표하는 등 거대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공급망 주요 협력국을 대상으로 1차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높은 개발수요와 경협잠재력을 보유한 인도의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2차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인도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관·기업이 참여해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강점을 소개하고, 각지의 산업현장 방문을 직접 주선하였다. 이러한 교류 기회를 통해 경제협력 핵심국인 인도와 유무상 개발협력 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 기대된다.

워크숍 첫날인 12일(화)에는 인도 타밀나두주(州) 재무부 차관과 안드라 프라데시주(州) 인프라투자부 차관이 항만, 조선, 도시개발 등 분야별 개발 계획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서, 한국 항만협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관계기관이 한국의 개발경험과 우리 기업이 갖는 강점을 소개하고, 인도에서의 추진 희망 사업을 제안하였다. 양측은 상호 관심 분야가 일치함을 확인하고 협력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환영사를 통해 “경공업에서 시작해 중화학공업, 자동차, 조선, 첨단산업으로 이어진 산업화 경험을 토대로, 한국은 인도에게 최고의 경제협력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우리 기관·기업과 인도 정부 간 교류가 확대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13일부터 3일간 이어진 행사에서는, 부산항만공사, HJ중공업 영도조선소, 구로 철도교통관제센터, 마곡 산업단지 등 인도 정부의 개발계획과 연계한 산업현장 방문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인도 정부 관계자들은 정보통신기술 (ICT) 기반 도시행정, 자동화 물류시스템 등 한국의 우수한 기술 수준을 직접 체험하고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경제외교와 개발 협력을 연계한 정책, 행사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 정부와의 교류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 기관·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개발금융국 개발전략과	책임자	과 장	최지영 (044-215-8770)
		담당자	사무관	한예린 (yer.in1209@korea.kr)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